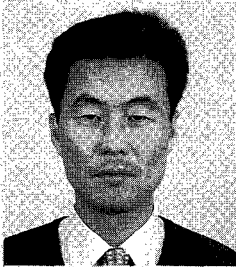


종계장 양극화 현상 뚜렷해졌다.



이 상 배
(주)삼화농원 부장

평소 IMF(국제통화기금)라는 용어를 알
았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으나 지난
1997년 11월 21일 우리나라의 가용 외환 보유
액이 40억불 이하로 낮아지면서 정부는 지불
유예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에
긴급 구제기금을 요청하면서 IMF라는 생소환
용어는 전 국민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알려지

기 시작하였다.

IMF체제는 금융권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
다가 제조업으로까지 힘이 가해져 급기야는 양
계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 변화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양계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은 초기에는
외환위기와 양계업은 그다지 연관이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들을 한 것도 사실이다.

세계화라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시설과 종
계는 물론 사료원료, 약품에 이르기까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몇 개월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양계업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
너져 내리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게 되면서
부채를 이기지 못한 많은 양계농가들이 잇단
도산하는 과정을 겪으며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가 있다.

다행히 발빠르게 구조조정을 하여 살아남은
농가들은 생산량 감소로 경기가 호전되어 앞날
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가져볼 수도 있으나 자
칫 국내경기와 맞물려 규모 확대를 지나치게
이행한다면 어려움 극복은 힘들게 될 수도 있
다고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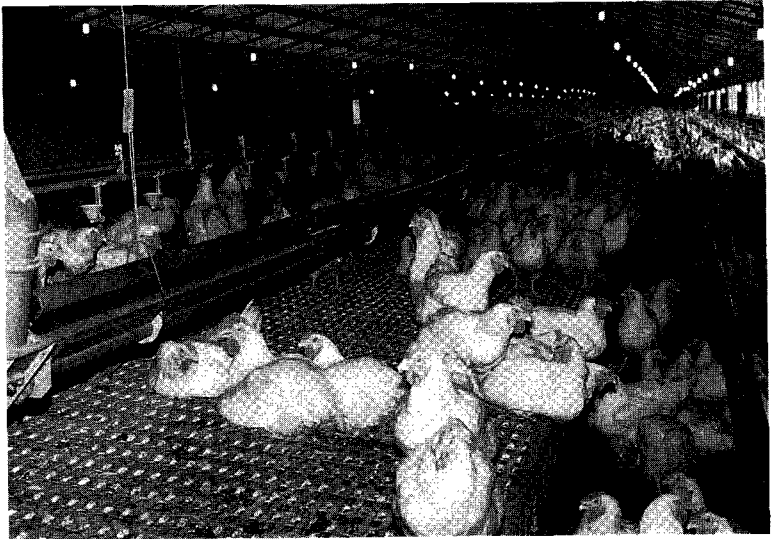
이 같은 점을 전제로 하여 육용종계업의 그
간 변화와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원종계(GPS) 부분

현재 국내의 육용원종계는 5개농장 5품종 체
제에서 3농장 4품종으로 재편이 되어 종계공급
이 이루어지고 있다.

1997년까지만 해도 국내 전체의 종계시장 규
모에 비추어 볼 때 너무 많은 원종농장과 품종
이 존재하여 품종간의 경쟁이 너무 치열한 나

머지 생산원가 이하에서 판매가 이루어 졌고, 원종농장은 연평균 사업성이 없는 경영을 유지하다보니 양질의 종계생산을 위한 원종계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왔다.



이런 가운데에도 원칙에 준한 원종계 농장을 운영해 온 업체는 원종계 업계의 재편속에서 종계의 수출에까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다.

환율상승으로 수출경쟁력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시장으로의 과잉공급은 결국 병아리 생산을 양적으로 자극하여 육계병아리 생산량 과잉으로 이어져 육계산업을 전체적으로 불황의 늪으로 몰고가는 원리를 감안하여 일정한 물량을 해외로 수출함으로써 내수진작과 함께 과잉생산을 방지하여 국내 적정경기를 유지시키려는 노력들이 나타났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삼화농원의 경우 1998년 3월에 대만에 종계(PS) 수출을 시작으로 1999년에는 이미 일정물량을 동남아에 수출하기로 계약까지 마친 상태이다. 또한 다른 몇 개국의 국가와도 수출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종계의 위생수준이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노력여하에 따라 충분히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로 받아들이고 끊임 없는 투자와 노력이 필요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

2. 종계(PS) 부분

종계업은 사실 IMF 이전부터 병아리값의 폭락으로 고사상태에 놓여 있었다.

불황후에 호황이라는 과거의 흐름을 예상하여 적자를 차입금으로 메꾸어 가며 버텨오다가 경기침체와 금융경색으로 제일먼저 도산하는 농가가 급증하였다. 이렇게 계속되어 온 경영적자와 자금투입의 난항으로 몇몇 종계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농장에서 환우계가 급증하고 있다.

종계육성원가의 상승과 자금력 부족으로 종계입추를 할 수가 없는 처지라고는 하지만 환우계가 증가할수록 육용실용계(CC) 병아리의 품질저하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또한 종계의 생산성저하가 뚜렷하게 야기 되었다.

자금난으로 농장을 위한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도 유지하기조차 어렵다 보니 환경개선이 어려워 닭의 관리보다는 경영

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종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시킬 수 없는 상황도 나타났다.

결국 종계의 품질이나 생산성저하는 육계 초생추의 품질저하로 연관되어 육계생산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품질이 나쁜 병아리를 입추한 농장들은 비싼 사료비로 인하여 그 피해는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IMF 이후 종계업계의 가장 큰 변화를 든다면 종계입추의 양분화 현상을 꼽을 수 있다. 종계업계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초래되어 끝까지 자금력을 지탱해온 종계장과 계열주체가 위주가 되어 종계입추가 유지되고 있을 만큼 변화는 확연해졌다.

지난 1998년의 경우, 몇몇 종계장 및 계열업체에서 입추한 종계의 숫자는 전체를 놓고 볼 때 50%를 넘는 수준이었다.

다음은 생산성이 높은 품종을 선호하는 경향이 심해졌다. 원자재 비용이 비쌀수록,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농가들은 생산성을 더욱 중요시하는 경향이 두드러 졌으며 특히, 종란생산성이 높은 품종을 선호하는 것이 과거보다 훨씬 심해졌다.

육계출하체중이 줄어들수록 병아리 값이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 이 같은 현상은 더욱 뚜렷해 진다.

3. 육계(CC) 부분

경제위기 이전에는 계열화사업이 일정한 수준에서 머무르는 경향이 높았다. 육계농가도 자금난이 심해 사료와 병아리 구입에 애로가 생기자 계열주체와 계약사육을 체결하고자 하

지금까지 양적 성장에 친숙해진 양계인들은 그래서 더 고통스런 구조조정의 중심부에서 있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수입개방이 처음 논의 되었던 1980년대 초반처럼 변화해야 한다는 중압감이 고통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1998년에는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80% 이상이 계약사육으로 생산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당분간 이 같은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종계입식이 지난해에 현저하게 감소한 결과 실용계 병아리 생산량이 수요량과 균형을 이루고 있어 각 부화장들이 장기간 어려웠던 점과 판매량 확보 차원에서 일반 사육농가에 판매하는 것보다는 계열주체와 거래하는 것이 경영상 안전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병아리 공급 패턴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4. 기타 일반 부분

양계업계의 고질적인 대금결제 의 병폐는 부분마다 차이가 있긴 하여도 대개 몇 가지 형태로 분류가 된다. 그 중 가장 비합리적인 방법이 장기간 후에 발행하는 어음결제 방법이다. 금

음위기 이전에는 심각한 상태였으나 IMF 체제 이후 신용거래가 무너지고 실물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난 해부터 현금화 비율이 높아져 어음부도율이 아마도 최근 몇 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대부분 거래시 부도 때문에 어음결제나 지급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 하반기로 접어들면서는 어음발행은 대폭 감소하여 부도율이 낮아진 것도 사실이나 자금이 막혀 애로가 많았던 점도 변화중의 하나로 볼 수가 있는데 차츰 현금거래 비중이 높아졌다고 보여진다.

소비에 있어서도 실업자가 대거 양산되면서 호화 사치품 일변도에서 합리적이고 저렴한 상품의 소비가 증가하였다. 값이 싸면서도 위생적인 상품을 선호하는 욕구가 커지면서 양계산물 공급도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솔두경 치킨

이 아닌가 생각된다.

출하중량을 낮추어 심지어 3마리에 1만원씩 공급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장에 뿌리를 내렸다는 사실이 이를 잘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어쨌든 IMF체제의 출범은 양계업의 양적 성장을 가로막는 역사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양적 성장에 친숙해진 양계인들은 그래서 더 고통스런 구조조정의 중심부에서 있었다고 생각할런지도 모른다. 어쩌면 수입개방이 처음 논의 되었던 1980년대 초반처럼 변화해야 한다는 중압감이 고통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철저히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하여 양과 질을 함께 높여가는 과제가 남은 셈이 아닌가 한다. **양계**

양계유통전문

- 병아리 (산란계, 육용계)
- 중 추 (산란계, 중추농장 직영판매)
- 노 계 (산란계, 육용종계)



대림유통

충청남도 천안시 쌍용동 1179번지
전 화 : (0417) 574-4600/1

대표 : 변 광 일

농 장 : (0417)582-3827

팩 스 : (0417)572-5949